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1-38
<https://doi.org/10.29212/mh.2019..11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삼국시대 ‘당항성 전투’의 역사적 실상

윤성환*

1. 머리말
2. 『삼국사기』의 혼란
3. 신라 善德王의 ‘對唐 구원 요청’ 時點과 그 내용
4. 『구당서』의 관련 기록 검토
5. 당항성 전투의 재구성과 백제의 대외정책
6. 맺음말

1. 머리말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史料에 근거한다. 달리 말하자면 역사학은 사료의 제약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사료가 전하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거짓이거나, 오류일 경우 역사학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사료 자체가 부족하거나 교차 검증에 필요한 제3의 자료가 부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국시대 ‘党項城 전투’ 역시 그러한 소재에 해당된다.

* 성균관대 사학과 졸업

당항성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九奉山에 소재한 唐城으로 추정되는바, 주지하다시피 신라는 남양만을 끼고 있는 이곳을 553년 한강유역 점령 이후 대중국 교섭의 관문으로 활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당항성은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 국제정치의 거점이기도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항성 주변의 교통로상에 다수의 성곽을 배치해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백제 義慈王은 재위 초 신라의 對唐 교류를 차단하고자 고구려와 모의해 당항성을 공격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른바 ‘당항성 전투’의 시기 및 전개 양상과 관련해 그 기본 자료인 『삼국사기』에서조차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삼국사기』 新羅本紀에는 642년 8월 백제가 고구려와 화친해 당항성을 공격하려 모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百濟本紀에는 643년 11월 의자왕이 당항성을 공격했으나 곧 철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상의 혼란은 당항성 전투 및 그와 관련된 당시의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바, 특히 이 시기 백제와 고구려의 화친 여부(일명 ‘麗·濟連和說’)는 현재까지 학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¹⁾ 그런데 ‘여·제연화설’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는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연구를 개관하면, 우선 ‘당항성 전투’를 역사적 사실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백제의 당항성 공격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거나²⁾ 신라가 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꾸며낸 술책³⁾ 또는 예견으로⁴⁾ 본다. 한편, 당항성 전투를 역사

1) 이와 관련된 研究史는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술』 79, 2011, 7~20쪽;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 13, 2015, 71~72쪽에 정리되어 있다.

2) 주보돈,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한국학논집』 20, 1993, 30쪽의 註26;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 27, 2007, 20~21쪽.

3) 주보돈, 「7世紀 羅唐關係의 始末」, 『영남학』 20, 2011, 148쪽.

적 사실로 보는 입장 역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당항성 전투의 시기를 둘러싼 논란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42년 8월 설,⁵⁾ 643년 설,⁶⁾ 643년 8월 설,⁷⁾ 643년 9월 설,⁸⁾ 643년 11월 설로⁹⁾ 대별해볼 수 있는바,¹⁰⁾ 대체로 최근에는 643년 또는 643년 11월 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642년 10월 고구려에서 '淵蓋蘇文의 政變'이 일어나고, 그해 겨울 김춘추가 평양을 방문한 정황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백제와 고구려가 642년에 화친했다면, 과연 이해 연말 김춘추가 평양행을 택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¹¹⁾

-
- 4) 이호영, 「麗·濟連和說의 檢討」, 『경희사학』 9·10, 1982, 29쪽.
 - 5)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 96, 2015, 157~159쪽.
 - 6)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01쪽;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2002, 65쪽;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2004, 14~16쪽;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선사와 고대』 47, 2016, 62~63쪽; 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백제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 32, 2016, 114쪽.
 - 7) 정효운, 『古代韓日關係史の研究』, 立命館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3, 52~53쪽.
 - 8) 박주신, 「百濟 義慈王代의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한국사론』 61, 2015, 61쪽.
 - 9)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 24, 2004, 31~32쪽; 노중국, 「7世紀 新羅와 百濟와의 關係」,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 2010, 131~132쪽; 김진한,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39, 2011, 103쪽;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 79, 2011, 16~20쪽; 최호원, 「高句麗 寶藏王代 對新羅關係와 認識」, 『고구려발해연구』 50, 2014, 198쪽; 임기환, 「연개소문과 김춘추, 국운을 바꾼 선택」, 『쟁점 한국사』 전근대편, 창비, 2017, 245쪽.
 - 10) 개별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은 아래 논지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 11) 글쓴이 역시 일전에 발표한 글에서 이와 같은 정황을 들어 '642년 8월 설'을 비판한 바 있다(윤성환, 앞의 논문, 2011, 16쪽).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이 점이 '642년 8월 설'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642년 10월 고구려에선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나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즉, 642년 8월 고구려-백제 간에 화친이 성립되었더라도 두 달 후 고구려에서 대규모 정변이 발생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642년 겨울 김춘추로선 충분히 평양행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실 신라에 대한 적대적 입장 및 군사적 공세에 있어선 정변 이전 영류왕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윤성환,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對唐)

한편, 이 같은 정황에 주목해 ‘642년 설’을 비판하면서도 당항성 전투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치 않다며 입장을 유보하는 경우도¹²⁾ 있다.

이처럼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선 현대의 연구자들 역시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어쩌면 새로운 제3의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은 계속 미궁에 빠져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에선 그동안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다음 몇 가지 측면에 유의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왕의 연구에선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던 바, 이는 종래 국내외 기록들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소홀히 한 것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기록이 혼란스러울수록 해당 기록의 맥락과 생성 경위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唐에 구원을 요청했던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入唐’ 시점을 구분하지 않은 것 역시 기존 연구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선 기왕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이 같은 측면에 주목하여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 현전자료상에서 확인 또는 추론할 수 있는 최대치에 접근해볼 것이다. 그런 뒤 당시 백제의 대외정책에 관한 소견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해보고자 한다.

2. 『삼국사기』의 혼란

640년대 초 백제-신라의 당항성 전투를 둘러싼 각종 사실관계와 관련해선, 그 기본사료라 할 수 있는 『三國史記』에서조차 무척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당항성 전투와 관련해 『삼국사기』 新羅本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교와 정국동향, 『동북아역사논총』 59, 2018, 36쪽 참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글쓴이가 ‘642년 8월 설’에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는 아래 논지 전개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12) 최현화, 「7세기 중엽 羅唐關係에 관한 考察」, 『사학연구』 73, 2004, 36~37쪽.

① 봄 정월 사신을 唐에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가을 7월 백제왕 義慈가 크게 병력을 일으켜 나라 서쪽의 40여 성을 攻取하였다. 8월에는 또 고구려와 모의하여 党項城을 취해서 당으로 가는 길을 끊으려고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唐太宗에게 위급함을 고하였다. 이 달에 백제장군 允忠이 병력을 거느리고 大耶城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都督 伊滄 品釋 舍知 竹竹 龍石 등이 그곳에서 죽었다. 겨울, 왕이 장차 백제를 정벌해 대야의 戰役을 보복하려 하였다. 이에 이찬 金春秋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요청하였다.¹³⁾(『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1年)

위 기록은 642년(선덕왕 11)의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642년 7월 신라의 西邊 40여 성을 함락시킨 백제가 같은 해 8월에는 신라가 중국과 통하던 관문인 당항성을 공격하고자 고구려와 공모했다고 한다. 그 목적은 신라의 對唐 朝貢路 차단에 있었으며, 이에 신라는 遣唐使를 파견해 이를 알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8월에 백제는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 기어이 함락시켰다. 위 기록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때 백제는 7월에 신라를 상대로 거두었던 대규모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당시 신라 서변의 거점성이었던¹⁴⁾ 대야성 공격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야성 전투에 패배한 결과의 여파로 이해 겨울 신라 조정은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해 請兵外交를 추진했다. 이 역시 ‘대야성 전투’와 함께 7세기 삼국 관계사에서 유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당항성 전투’는 백제·고구려가 연합군을 결성한 사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백제의 ‘공격 계획’ 또는 ‘단독 공격’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위의 자료①뿐만 아니라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에서—중국 측 자

13) “春正月 遣使大唐獻方物 秋七月 百濟王義慈大舉兵 攻取國西四十餘城 八月 又與高句麗謀 欲取党項城 以絕歸唐之路 王遣使 告急於太宗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滄品釋 舍知竹竹龍石等死之 冬 王將伐 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滄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

14) 당시 백제가 점령한 지역 및 대야성의 전략적 가치와 관련해선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 확장」, 『경주사학』 23, 2004, 7~9쪽을 참조할 것.

료까지 포함해서— 확인되는 측면이므로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백제와 신라가 당항성에서 실제 전투를 벌였는지 여부는 다소 엇갈리게 나타난다. 자료①과 중국 측 사서에선 백제가 고구려와 화친하고 당항성 공격을 모의했다고 기록해 ‘공격 계획’에 그쳤던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후술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의자왕이 직접 병력을 동원해 당항성을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각 사료의 문맥에 맞춰 용어상 구분해야 한다는 점만 일단 확인해두기로 하자.¹⁵⁾

아울러 자료①의 기록대로라면,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대야성 전투와 ‘동시에’ 추진된 셈이다. 자료①에서 백제 장군 윤충의 대야성 공격 사실을 전하면서 유독 “이 달에(=是月)”라고 명기한 것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만일 자료①이 당시의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 역시 간과해선 안 될 측면이라 생각된다. 이에는 당시 백제의 전략적 목적이 내재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료①의 신빙성 여부다. 전술했다시피 동일한 『삼국사기』 내에서도 ‘당항성 공격 계획’의 시기를 本紀별로 다르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료①의 밑줄 친 구절은 실상 『舊唐書』 百濟傳를 차용한 것이라 보인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보다 앞서 편찬된 『구당서』 백제전 貞觀 16年 條에 이와 거의 동일한 구절이¹⁶⁾ 전해지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의 무분별한 중국 측 기록 답습은, 이 시기 신라의 對唐 구원 요청 時點까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후술)

이상의 검토 결과만을 놓고 보면, 자료①의 밑줄 친 구절은 『구당서』 백제전의 해당 구절을 무분별하게 차용한 기록에 불과하다.

15) 다만, 불가피하게 ‘당항성 전투’와 ‘당항성 공격 계획’을 총칭해야 할 경우에는 ‘당항성 공격 (계획)’이라 표기할 것이다.

16)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百濟. “(貞觀) 16年(642) 義慈興兵伐新羅四十餘城 又發兵以守之 與高麗和親通好 謀欲取党項城 以絕新羅入朝之路 新羅遣使告急請救 太宗遣司農丞相里玄獎齋書 告諭兩蕃 示以禍福 及太宗親征高麗 百濟懷二 乘虛襲破新羅七城”

그런데 이런 자료①에서조차 주목할 대목이 있다. 바로 ‘642년 8월’이라는 시점이다.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단순히 ‘642년(貞觀 16)’이라고만 전한 『구당서』와 달리 자료①에서는 그 시기를 ‘642년 8월’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642년 8월’이라는 시점은 확인 결과 여타의 중국 측 사서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다. 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선 종전의 지적처럼 『삼국사기』 찬자의 杜撰일 가능성이¹⁷⁾ 있다. 즉, 자료①이 의존한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642) 조의 경우(註16 참고) 실제로는 645년에 해당하는 사실까지 일괄하여 기록하고 있으므로¹⁸⁾ 자료①의 찬자가 643년(선덕왕 12) 조에 기입해야 할 사실을 642년(선덕왕 11) 조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642년의 경우 백제가 신라 서변의 옛 가야 지역 장악에 주력하고 있었던 만큼, 당항성 공격을 동시에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¹⁹⁾ 제시된다.

이와 달리 『삼국사기』 찬자가 자료①을 서술하면서 전적으로 『구당서』를 비롯한 중국 측 사서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최소한 ‘642년 8월’이라는 시점은 신라의 고유전승일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 가령 자료①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야성 전투 장면이나 김춘추의 對高句麗 파견 결정 관련 기록은 분명 『삼국사기』 편찬 당시까지 전해지던 신라 고유의 전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자왕이 신라 서변 40여 성을 공격한 시점이 ‘642년 7월’이라는 자료①의 기록 역시 그러하다. 해당 사실 역시 『구당서』 백제전에 전하지만, 그 시점이 642년 7월이었다는 점은 오직 자료①에서만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자료①의

17)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23쪽;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선사와 고대』 47, 2016, 62~63쪽; 박주선, 「百濟 義慈王代の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한국사론』 61, 2015, 61쪽.

18) 노중국, 「7世紀 新羅와 百濟와의 關係」,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 2010, 131~132쪽.

19) 노중국, 앞의 논문, 2010, 132쪽.

기록 역시 서술의 大綱은 『구당서』 백제전을 빌리되, 그 시기(642년 8월)는 신라의 고유 전승에 근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으로, ‘당항성 공격(계획)’과 관련해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또 다른 전승을 살펴보자. 자료①과 달리 『삼국사기』 百濟本紀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②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에 들어가 조공하였다. 겨울 11월 왕이 고구려와 和親하여 신라의 党項城을 취하여 入朝 길을 차단하려 모의하고 마침내 병력을 일으켜 공격하였다.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니 왕이 이를 듣고 병력을 철수하였다.²⁰⁾(『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3年)

위 기록은 643년(의자왕 3)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제의 당항성 공격은 643년 11월에 추진되었다고 한다. 즉, 신라본기의 기록(자료①)과는 1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럼에도 위 기록의 밑줄 친 구절(“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에서 드러나듯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은 『구당서』 백제전 및 자료①과 거의 흡사하다.²¹⁾ 다만, 백제의 ‘당항성 공격’이 ‘643년 11월’이었다는 점, 의자왕이 병력을 동원해 당항성을 공격한 사실(“遂發兵攻之”), 그리고 신라의 대당 구원

20) “春正月 遣使入唐朝貢 冬十一月 王與高句麗和親 謀欲取新羅党項城 以塞入朝之路 遂發兵攻之 羅王德曼遣使請救於唐 王聞之罷兵.” 여기서 ‘진하게’ 표시한 구절들은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해 여타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21) 이 점에 주목해 자료②를 백제의 독자적인 전승으로 보지 않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자료②의 “遂發兵攻之”이라는 구절 역시 『삼국사기』 찬자의 과장으로 본다(방용철,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2016, 284쪽). 그러나 『삼국사기』 찬자의 찬술태도로 보건대(『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論曰 新羅王稱居西干者一 次次雄者一 尼師今者十六 麻立干者四 羅末名儒崔致遠 作帝王年代曆 皆稱某王 不言居西干等 豈以其言鄙野不足稱也 … 今記新羅事 其存方言 亦宜矣”) 해당 찬자가 직접 저본자료를 과장해 서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요청 소식을 접한 의자왕이 당항성 공격을 중지한 사실(“王聞之罷兵”)은 오직 위의 자료②에서만 보이는 내용으로서 중국 측 사서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로 보아 자료②는 중국 측 사서(『구당서』)의 기록과 국내 전승 자료를 착중시켜 조합한 기사라 생각된다. 기실 『삼국사기』에는 이 같은 찬술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다수 산견되는바, 가깝게는 자료① 역시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문제는, 자료②에 활용된 국내 전승 자료의 백제 고유전승 여부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왕의 지적처럼 백제 멸망기의 史蹟을 백제인이 정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²²⁾ 그런 점에서 현전하는 백제 멸망기, 특히 武王~의자왕대 관련 기록은 당시 백제의 동향 및 백제와의 관계를 기록한 신라인의 전승에 근거했을 개연성이 높다.²³⁾ 설사 백제인이 정리한 백제 멸망기 관련 사적이 존재했다라도,²⁴⁾ 그조차 백제 멸망 이후 신라인의 손을 거쳤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신라인들이 고의로 기록을 왜곡하진 않더라도 자국 중심의 관점이나 사실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1차 자료를 재정리했을 가능성²⁵⁾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²⁶⁾ 그런 점에서 백제본기에 전해지는 백제 멸망기 관련 기록은 신라인의 관점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다.

22) 강중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90~91쪽.

23) 강중훈, 앞의 논문, 2006; 임기환,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306~308쪽.

24) 최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하는 640년대 관련 기록은 백제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백제의 전승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본 견해(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 記錄의 基本原典과 改撰」, 『역사와 담론』 80, 2016, 183~184쪽)가 제기된 바 있다.

25) 후보돈, 「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 『한국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410쪽.

26) 글쓴이는 기왕에 발표한 글에서 이 같은 사항을 미처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②에만 나타나는 기록을 백제 고유의 전승으로 보고 당항성 전투 시기 역시 643년 11월로 추단한 바 있다(윤성환, 앞의 논문, 2011, 19~20쪽). 이 자리를 빌려 당시의 논지를 정정코자 한다.

다만, 자료②가 백제의 고유전승이건, 신라 쪽의 전승이건 간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해당 사실들이 643년 11월이라는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일어날 수 있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자료②의 기록대로라면, 643년 11월 의자왕이 고구려와 화친해 당항성을 공격하자 신라 측은 즉시 당에 사신을 파견해 구원을 요청했고, 이 소식을 접한 의자왕이 자진해서 병력을 철수시킨 셈이 된다. 그러나 당시는 신라에서 당의 長安까지 가는 데만도 2~6개월씩 걸렸으므로²⁷⁾ 이를 곧바로 取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료②는 당항성 공격과 관련된 각종 사실들을 일괄적으로 기술한 기사라 보인다. 아울러 의자왕이 스스로 철수했다는 결말 역시 어찌 보면 싱겁기조차 하다. 백제의 당항성 공격은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할 정도로 성공적인 전략이었음에도, 의자왕은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자마자 순순히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위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자료②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의자왕이 병력을 철수시킨 계기가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이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여타 기록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의자왕의 자진 철병 사실을 굳이 전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당시 신라인의 視點에서 보더라도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백제 멸망기의 사적을 기록했을 신라인의 입장에서,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계획)’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당시 신라 조정이 당에 구원을 요청해 그것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이야말로 더욱 중요했을 것이기에 말이다. 그런 점에서 자료②의 초점은, 당항성 전투의 구체적 양상이 아니라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에 따른 백제의 당항성 공격 중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⁸⁾ 그런 만큼 자료②를 둘러

27) 권덕영, 앞의 책, 1997, 227~230쪽.

28)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료②의 밑줄 친 구절은, 자료②의 저본 자료를 옮겨 쓰던 『삼국사기』 찬자가 당시의 정황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구당서』 백제전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추가한 구절이라 생각된다.

싼 사실관계를 검토할 경우에도 이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삼국사기』는 ‘당항성 공격(계획)’과 관련해 극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의 일차적 원인은 『삼국사기』 찬자가 각 본기별로 중국 측 사서의 해당 기록을 무분별하게 답습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료①과 ②는 ‘당항성 공격 계획’과 ‘당항성 전투’를 구별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당시의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혹 ‘당항성 공격(계획)’과 연관된 주변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시기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에 주목해볼 차례다.

3. 신라 善德王의 ‘對唐 구원 요청’ 時點과 그 내용

자료①과 ②에서 ‘당항성 공격(계획)’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신라 선덕왕의 대당 구원 요청이다. 그런 만큼 ‘당항성 공격(계획)’의 실체를 탐색하고자 할 때 이 무렵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과 관련된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시기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한 시점을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에서는 세 가지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642년 8월(자료①), 643년 9월,²⁹⁾ 643년 11월(자료②)이다. 그런데 각국의 조공 사실을 매년 월별로 기록하고 있는 『冊府元龜』 外臣部에 따르면, 이 무렵 신라 사신이 入唐한 시기는 642년

29)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2年.

정월, 643년 정월과 11월이다.³⁰⁾ 물론 이에 관련 사실이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러하다. 예컨대 역시 동일한 『책부원귀』 외신부 및 『資治通鑑』에 따르면 643년 9월 庚辰(=4일)에 신라 사신이 당 태종을 접견해 구원을 요청한 것으로³¹⁾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인 일자까지 적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적 사실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해당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 12년(643) 조에도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측 기록을 통해 볼 때 642년 8월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했다는 자료①은 따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아마 이는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를 답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것이다.³²⁾ 그런데 여기서 ‘643년 11월’의 경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자료②에 따르면 643년 11월은 일견 신라 측에서 당에 사신을 파견한 시점처럼 보이지만, 『책부원귀』에 따르면 해당 시점은 신라 사신이 ‘入唐’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 측 사서에서 각국의 조공 사실을 기록할 경우 해당 사신이 자국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점을³³⁾ 고려할 때 643년 11월 신라가 건당사를 ‘파견’해 구원을 요청했다는 자료②의 기록은 따르기 어려운 것이다.³⁴⁾ 전술했다시피 실제로도 당시의 여건상 643년 11월 한 달

30)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 第3 (唐) 太宗 貞觀 16~17年 條 중합. 642년 정월, 643년 정월의 遣使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확인된다.

31) 『冊府元龜』 卷9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7年.

32) 종전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 즉, 자료①에 전하는 건당사 기사는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찬일 뿐, 실제로는 이듬해(643) 세 차례 파견한 건당사 중의 하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권덕영, 앞의 책, 1997, 23쪽).

33) 권덕영, 위의 책, 1997, 228쪽.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예컨대 우리 측 사서의 ‘독자 전송’에서 중국에 遣使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경우 이는 중국으로 떠난 시점을 기록한 것이다.

34) 종래 연구에선 대부분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入唐’ 시점을 구별하지 않은 채 논의를 전개했던바, 이 역시 ‘당항성 공격(계획)’을 둘러싼 이해에 혼란을 유발한 원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시점이 643년 9월이었으므로 당항성 전투는 643년 8월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 견해(정효운, 『古代韓

사이에 백제의 당항성 공격→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의자왕의 병력 철수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자료②의 해당 기록 역시 자료①과 마찬가지로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를 傳寫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생각된다. 따라서 신라 선덕왕의 대당 구원 요청 시점은 643년 9월로 확정할 수 있겠다. 또한 642~643년 사이 신라 사신의 '입당' 시점은 642년 정월, 643년 정월·9월·11월 총 4차례였음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즉, 신라는 643년 한 해에만 무려 3차례나 당에 사신을 파견한 셈이다. 당시 절박했던 신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입당' 시점을 구별해서 볼 경우 종래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으로 파악해왔던 『삼국사기』 내 해당 기록들 역시 재조정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使行에 대략 2~6개월가량 소요된 사실을 고려하면,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은 대략 643년 3월~7월 무렵, 643년 11월에 입당한 사절은 대략 643년 5월~9월 무렵에 본국을 출발했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즉, 643년 11월에 입당한 사절단은 같은 해 9월에 입당한 사절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하기도 전에 신라를 출발했던 것이다. 아울러 당에서 유학하던 승려 慈藏이 643년 3월에 귀국한 사실을³⁵⁾ 염두에 두면, 643년 9월에 입당한 사절의 경우 자장의 귀국 이후에 출발한 것으로³⁶⁾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당항성 전투의 시점을 추론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 견당사의 渡唐시 당항성 이용이 일반적이었던 만큼, 이들 사절단이 신라를 출발한 시점에는 최소한 당

日關係史の研究』, 立命館大学校 박사학위논문, 1993, 52~53쪽)는 따르기 어렵다.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신은 당연히 그보다 수개월 전에 본국을 출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5)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2年. “三月 入唐求法高僧慈藏還”

36) 이때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이 자장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신라사학보』 38, 2016, 11~12쪽).

항성이 백제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신라 조정에서 643년 9월에 입당한 사절단이 귀국하기도 전에 재차 견당사를 파견한 사실에 주목한다면, 양 사절단의 출발 시점 사이에 모종의 급박한 위기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 역시 상상해볼 수 있다. 단, 이에 대한 검토는 당시 신라 사절단의 구원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신라의 구원 요청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선 다음 두 종류의 기록이 전해진다.

③ 9월 庚辰(4일)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구려·백제가 臣國을 침범하여 누차 수십 성을 攻襲하고, 양국이 連兵하여 신의 나라를 반드시 취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 하니 신의 社稷은 반드시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陪臣을 보내 大國에 歸命하니 원컨대 (당나라의) 군대를 편성해주시어 구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使人에게 말하기를 “내가 실로 너희 세 나라의 (서로) 침략하게 된 바를 안타깝게 여겼으니, (이것 이) 빈번히 사신을 보내 너희 삼국을 화해하도록 한 이유이다. 고구려·백제가 발길을 돌려선 뉘우침을 뒤집으니 너희의 강토를 집어삼키고 나누는데 뜻이 있다. 너희 나라는 무슨 기이한 계책을 두어 패망을 면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使人이 말하기를 “신의 왕이 일이 막히고 계책이 다하여 오직 대국에 급히 고향 따름이니 바라건대 그것으로써 신의 나라를 보전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변방의 군사를 발동해 契丹과 靺鞨을 거느리고 遼東으로 곧장 들어가면 너희 나라는 저절로 풀릴 것이니 너희의 (고구려·백제에 의한) 1년의 포위를 느슨하게 할 만하다. 이후 (요동으로의 공세가) 이어지지 않음을 알면 (고구려·백제의) 군대가 다시 멋대로 침략하고 갈볼 것이니 너희가 편하지 못한 속에 네 나라가 함께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제1책이다. ... 너희 나라는 婦人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으며 임금이 덕을 잃고 (이웃나라의) 침략을 불러와 해마다 편안할 날이 없으니 내가 일가붙이를 보내 너희의 國主로 삼되, 스스로 홀로갈 수는 없으므로 마땅히 군사를 보내 호위케 하고 너희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너희 스스로 지키도록 맡길 것이다. 이것이 제4책이다. 그대는 마땅히 생각해보라. 장차 무엇을 따르겠는가?”라고 하였다. 使人이 단지 “예”라 할 뿐 대답이 없었다. 황제는 그가 용렬하여 군사를 요청하며 위급함을 고향 인재가 아님을 곤란하게 여겼다.³⁷⁾(冊府元龜 卷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④ 9월 庚辰, 신라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백제가 그 나라의 40여 성을 攻取하고 다시 고구려와 連兵하여 신라의 入朝 길을 끊으려 모의하니 (당의) 병력으로 구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司農丞 相里玄獎에게 명하여 璽書를 휴대시켜 고구려에 내려 말하기를 “신라는 국가를 (우리에게) 맡겨 조공이 그치지 않으니 너희와 백제는 각기 마땅히 병력을 거두어들이라.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병력을 일으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⁸⁾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太宗 貞觀 17年)

자료③과 ④는 신라 역사상 최초로 당에 請兵한 기록이다. 두 기록이 신라 사신의 당 태종 접견 및 구원 요청 시점을 643년 9월 4일로 摘記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당시 신라 사신의 메시지와 관련 해선 차이가 확연하다. 즉, 자료③에선 고구려·백제의 거듭된 공격 및 連兵, 그리고 고구려·백제가 9월에 대규모 공세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구원요청의 근거로 언급된 반면, 자료④에선 백제의 군사적 위협—신라 서변 점령, 신라의 조공로 차단을 위한 고구려와의 共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기록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이와 관련해 자료④(『자치통감』)의 경우 『구당서』 백제전 정관 16년 조와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해당 사건의 源

37) “九月庚辰 新羅遣使言 高麗百濟侵凌臣國 累遭攻襲數十城 兩國連兵 期之必取 將以今茲九月大舉 臣社稷必不獲 全 謹遣陪臣 歸命大國 願乞編師 以存救援 帝謂使人曰 我實哀爾爲三國所侵 所以頻遣使人 和爾三國 高麗百濟 旋踵翻悔 意在吞滅 而分爾土宇 爾國設何奇謀 以免顛越 使人曰 臣王事窮計盡 唯告急大國 冀以全之 帝曰 我少 發邊兵 總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 兵還肆侵侮 然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爲一策 … 帝曰 我少發邊兵 總契丹靺鞨 直入遼東 爾國自解 可緩爾一年之圍 此後知無繼 兵還肆侵侮 然四國俱擾 於爾未安 此爲一策 … 爾國以婦人爲主 爲隣國輕侮 失主延寇 靡歲休寧 我遣一宗枝 以爲爾國主 而自不可獨往 當遣兵營護 待爾國安 任爾自守 此爲四策 爾宜思之 將從何事 使人但唯而無對 帝難其庸鄙非乞師告急之才也”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12年 9月 條에 이 기록이 전제되어 있다.

38) “九月庚辰 新羅遣使言百濟攻取其國四十餘城 復與高麗連兵 謀絕新羅入朝之路 乞兵救援 上命司農丞相里玄獎齎 璽書賜高麗曰 新羅委質國家 朝貢不乏 爾與百濟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擊爾國矣”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上 2年 9月 條에 이 기록이 전제되어 있다.

자료가 아닌 『구당서』 백제전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3차 사료’에 해당하는 『자치통감』의 사료적 성격을³⁹⁾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함께 『구당서』 新羅傳 역시 당시 신라의 구원 요청 내용이 자료③(『책부원귀』)의 그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바,⁴⁰⁾ 그러므로 643년 9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내용은 자료③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⁴¹⁾

우선 자료③의 밑줄 친 구절을 보자. 이는 일견 신라 사신의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신라에서 보낸 國書의 일부분이라 생각된다. 밑줄 친 구절 중의 “장차 이번 9월”이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준다. 역시 9월에 당 태종을 접견한 신라 사신이 “장차 이번 9월”이라 발언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해당 국서가 작성되고 신라 사신이 본국을 출발한 시점 역시 643년 9월 이전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역시 신라 사신의 ‘파견’ 시점과 ‘입당’ 시점을 구별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한편, 당시 신라는 국서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호소했다. 먼저 고구려·백제가 누차 수십 성을 공격한 사실이었다. 아마 중국 측 사서에 특기되어 있는 642년 백제의 신라 서변 40성 점령 사건은 이때 당에 알려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고구려·백제가 군사연합(=連兵)을 결성해 이해 9월 대대적인 신라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신라의 ‘첩보’ 혹은 ‘예상’이었다(이하 ‘9월 공세설’). 여기서 그 시점을 9월로 특정한 것은, 신라 사신이 당 태종을 접견한 시점이 역시 9월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아마 해당 국서를 작성할 때 신라 사신이 당에 도착할 시점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쓴 결과가

39) 이와 관련해서, 강중훈, 「『晉書 慕容靚載記와 資治通鑑 晉穆帝紀 所載 ‘百濟’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 『대구사학』 121, 2015, 25쪽 참조.

40)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新羅. “(貞觀) 17年 遣使上言 高麗百濟累相攻襲 亡失數十城 兩國連兵 意在滅臣社稷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救助”

41) 그런 점에서 자료④를 전제한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上 2年 9月 條의 기록을 토대로 당항성 전투의 시점을 643년 9월로 보는 견해(박주선, 앞의 논문, 2015, 61쪽)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닐까 한다. 왜냐면 신라의 ‘9월 공세설’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종전의 지적처럼 신라가 제기한 ‘麗·濟連병설’은 허구이거나 과장이었을⁴²⁾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시기 백제 또는 고구려가 신라 조정을 뒤흔들기 위해 이와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여하간 신라의 ‘9월 공세설’은 이 무렵 고구려 침략을 구상하고 있던⁴³⁾ 당 태종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 당이 직접 고구려와 백제에 사절단을 파견해⁴⁴⁾ 삼국의 정세를 탐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즉, 이때 신라의 대당 청병외교는 당 태종의 제안에 신라 사신이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⁴⁵⁾ 신라가 제기한 ‘여·제연병설’은 그 자체 효과를 발휘한 셈이었다. 아울러 자료③에서 당 태종의 물음에 신라 사신이 “신의 왕이 일이 막히고 계획이 다하여”라고 답한 것은 642년 겨울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외교가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검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점은, 643년 9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내용 중 ‘당항성 공격(계획)’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는

42) 이호영, 「麗·濟連和說의 檢討」, 『경희사학』 9·10, 1982, 29~31쪽;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33쪽.

43)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榮留王 24年(641).

44) 상리현장이 이듬해(644) 1월 평양에 도착한 사실로(『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太宗 貞觀 18年 正月) 볼 때 그는 사실상 신라의 구원 요청 직후 당을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당시 고구려-백제의 연합 가능성에 대한 당 태종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45) 뒷날처럼 김춘추-당 태종 간의 밀약(648년)이 맺어진 것도 아니었던 시점에서, 신라의 講兵에 대한 당 태종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으로선 신라를 파트너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신라 사인이 “용렬하여 군사를 요청하며 위급함을 고할 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당 태종의 반응은 이때 파견된 신라 사신이 당의 시각에서 보기에 신라 조정의 비중 있는 고위급 인사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뒷날 김춘추를 만났을 때와—물론 이때는 당 태종의 고구려 遠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였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대비되는 당 태종의 태도는 이에서도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장면은 당시 최초로 이루어진 신라 ‘대당 청병외교’의 미숙성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사실이다. 혹, 신라가 제기한 ‘9월 공세설’이 고구려·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길 수도⁴⁶⁾ 있겠지만, ‘당항성 공격 계획’의 핵심은 신라의 대당 조공로 차단이었지, 국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라 병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즉, 643년 9월 신라가 당에 전달한 국서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단, 643년 9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이전에 백제가 당항성을 공격한 사실이 있었다면, 신라 국서에서 고구려·백제가 누차 수십성을 공격했다고 언급한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그것에 당항성 전투가 포함되었다면, 신라의 국서에는 고구려·백제가 朝貢路를 차단하려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있어야 마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료①(신라본기)에서 전하고 있는 ‘642년 8월설’을 따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에 불과한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642년 8월설’은 신라 국서에서 언급한 “고구려·백제의 수십 성 공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 만큼 643년 9월 당나라에 전달된 신라의 국서에는 ‘당항성 공격 계획’이나 ‘당항성 전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 본국을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643년 3월~7월 이전 ‘당항성 전투’가 실제로 일어났을 개연성 역시 낮다고 판단된다. 자료①에서 642년 8월로 기록한 ‘당항성 공격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적어도 642년 8월 무렵 신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면, 643년 9월 請兵을 위해 당에 보낸 국서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을 리 없는 것이다. 물론 643년 정월에 입당한 신라 사신이 이를 언급했을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지금까지

46)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종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와 같이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신라 사신의 구원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모든 자료에서 드러나듯 '당항성 공격 계획설'은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신라 최초의 대당 구원 요청 시점이 643년 9월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나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를 입수한 시점은 언제였을까?

4. 『구당서』의 관련 기록 검토

전술한대로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는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과정에서 당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 사서 가운데 당항성 공격 계획을 최초로 기록한 『구당서』를 검토해보면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643년 신라의 구원 요청과 그 직후 唐使 상리현장의 파견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구당서』 고려전과 백제전·신라전의 관련 대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을 보자.

⑤ **『구당서』 고려전** : (貞觀) 17년 그 뒤를 이은 왕 藏을 遼東郡王 高麗王에 책봉하였다. 또 司農丞 상리현장에게 새서를 휴대시켜 보내 고려를 설득하고 신라를 공격하지 말도록 하였다. 蓋蘇文이 현장에게 말하기를 “고려와 신라는 원한과 틈이 이미 오래되었다. ... 이 兵恐을 그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현장이 말하기를 “기왕의 일을 어찌 追論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개소문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⁴⁷⁾

⑥ **『구당서』 백제전** : (貞觀) 16년 義慈가 병력을 일으켜 신라의 40여 성을 공격하고 또 병력을 발동해 그곳을 지켰다. 高麗와 和親하여 通好하고 당항성을 취하여

47)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 “(貞觀) 17年(643) 封其嗣王藏為遼東郡王 高麗王 又遣司農丞 里玄獎齎璽書往說諭高麗 令勿攻新羅 蓋蘇文謂玄獎曰 高麗新羅 怨隙已久 … 此兵恐未能已 玄獎曰 既往之事 焉可追論 蘇文竟不從”

신라의 入朝 길을 끊으려 하니 신라가 사신을 보내 위급함을 보고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종이 司農丞 상리현장에게 새서를 휴대시켜 보내 兩蕃을 告諭하면 서 禍와 福을 보여주었다.⁴⁸⁾

⑦ 『구당서』 신라전 : (貞觀) 17년 사신을 보내 上言하기를 “고려·백제가 누차 서로 攻襲하여 수십 성을 잃었는데, 양국이 連兵하니 臣의 사직을 멸망시키려는 뜻입니다. 삼가 陪臣을 보내 대국에 歸命하니 군사를 편성해 구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상리현장에게 새서를 휴대시켜 보내 고려에 내려 말하기를 “신라는 국가를 (우리에게) 맡기고 朝獻을 그치지 않으니 너희와 백제는 마땅히 곧 병력을 거두어들이라.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내년에 마땅히 군사를 내어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⁹⁾

唐使 상리현장의 파견이라는 ‘동일 사건’을 둘러싼 위의 세 기록을 비교해보면서 『구당서』 동이열전 찬자의 서술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자료⑤에선 상리현장이 파견된 계기—신라의 구원요청—는 생략되어 있다. 다만, 연개소문과 상리현장 간의 대화 내용을 읊기는 방식으로 당의 요구에 대한 연개소문의 반응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바, 이는 자료⑥과 ⑦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자료⑤가 高麗傳인데다, 상리현장의 요구에 대한 연개소문의 반응은 당시 당 측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데에서 기인한 서술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자료⑦의 서술방식을 살펴보자. 자료⑦에선 앞서 자료③에서 제시한 바 있는 신라 사신의 구원 요청(643년 9월) 내용과 관련된 원 자료를 축약해 기재하고, 당 태종이 상리현장을 고구려에 파견한 사실 역시 당시 고구려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축약해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해당 국서가 신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던

48)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百濟. “(貞觀) 16年(642) 義慈興兵伐新羅 四十餘城 又發兵以守之 與高麗和親通好 謀欲取党項城 以絕新羅入朝之路 新羅遣使告急請救 新羅遣使告急請救 太宗遣司農丞相里玄獎齋書 告諭兩蕃 示以禍福”

49)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新羅. “(貞觀) 17年(643) 遣使上言 高麗百濟 累相攻襲 亡失數十城 兩國連兵 意在滅臣社稷 謹遣陪臣 歸命大國 乞偏師救助 太宗遣相里玄獎齋書賜高麗曰 新羅委命國家 不關朝獻 爾與百濟 宜即戡兵 若更攻之 明年當出師擊爾國矣”

만큼, 이를 신라전에 축약 기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서술방식은, 자료⑤와 ⑦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편, 자료⑥에선 백제의 신라 40여 성 점령, 고구려와의 화친 및 당항성 공격 시도를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 및 상리현장의 파견 계기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자료⑤와 ⑦에선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역시 자료⑤와 ⑦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한편 자료⑦에선 당에 구원을 요청하는 신라의 국서를 인용함으로써 자료⑥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리현장이 백제를 방문한 사실 역시 자료⑥에만 나타난다. 즉, 三國과 관련된 동일 사건의 경우, 각 열전 간에 존재하는 상호 유기적인 보완 관계는 백제전에도 관철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가급적 源 자료가 인용되고 있는 자료⑤ 및 ⑦과 달리 자료⑥에선 『구당서』 찬자가 원 자료를 나름대로 ‘가공’해 기술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당시 상리현장이 백제에 전달한 국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의자왕의 반응을 원 자료를 인용하며 기술하지 않고,⁵⁰⁾ 단지 “양변을 告諭하면서 화와 복을 보여주었다”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와 달리 백제의 경우 당시 당의 관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던 정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구당서』 찬자의 백제에 대한 태도를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처럼 오랜 적대 관계에 있지도 않던 백제를 병탄한 당의 입장으로선 가급적 백제의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기보다 백제 병탄의

50)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상리현장은 644년 백제를 방문했다(『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4年). 그런데 상리현장이 백제를 방문한 사실은 자료⑤에도 나타나지만, 그의 백제 방문시점이 644년이었던 사실은 백제본기에서만 확인된다. 아울러 『文館詞林』에 전하는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에 따르면, 당시 의자왕은 상리현장이 전달한 당의 국서에 대한 대응으로 이후 당에 夫餘康信을 파견해 백제의 입장과 해명을 담은 表文을 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구당서』 백제전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당위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구당서』 백제전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唐會要』 백제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⁵¹⁾ 양자의 全文을 대조해보면⁵²⁾ 『당회요』 백제전에선 『구당서』 백제전의 기록을 조금씩 축약해 기록하면서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역으로 『구당서』 백제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할 것이다. 당항성 공격 시도가 삼국 모두와 관련되는 사실임에도 『구당서』 동이열전 중 유독 백제전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구당서』 찬자는 백제가 신라의 入朝路를 끊으려 했다는 사실을 통해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삼국이 함께 연루된 사실일지라도, 『구당서』 찬자의 의도에 따라 개별 열전 별로 해당 사실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항성 공격 계획이 신라에 의해 전달되었음에도 『구당서』 백제전에만 남게 되었던 이유는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자료⑥에서 드러나듯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당에 전한 주체는 신라였다. 문제는, 그 시기다. 자료⑥에선 당항성 공격 계획과 신라의 구원 요청을 642년(정관 16)의 일로 서술하였고, 자료⑦에선 당항성 공격 계획은 기술하지 않고 643년(정관 17)에 있었던 신라의 구원 요청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료⑥이 지닌 연대상의 문제점은 기왕에 적실하게 지적된 만큼⁵³⁾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다. 전술한대로 『구당서』 찬자가 고려·백제·신라 열전에서 삼국이 연관된 ‘동일 사건’

51) 『唐會要』 卷95 百濟. 특히 『당회요』 백제전 중 “與新羅世為仇讎 貞觀十六年 與高麗通和 以絕新羅入朝之道 太宗親征高麗 百濟懷貳 數年之間 朝貢遂絕 至顯慶五年八月十三日 左衛大將軍蘇定方討平之”라는 구절에서 그러한 면이 확인하다.

52)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 兩 백제전의 全文을 대조하는 것은 피하겠다. 다만 『당회요』 백제전이 사실상 『구당서』 백제전의 축약본과 다름없으며 동시에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점만 지적해둔다.

53) 권덕영, 앞의 책, 1997, 23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10, 131~132쪽.

을 서술할 경우 각각 상호 보완관계가 성립하도록 기술한 점을 고려하면, 자료⑥과 ⑦의 비교를 통해 볼 때 당항성 공격 계획이 당에 전달된 시점은 643년 9월을 전후한 시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643년 9월 신라가 당에 보낸 국서에선 '당항성 공격(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643년 11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뿐이다.

그런데 현전자료상 643년 11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하 '11월 견당사')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전해지는 바가 전혀 없다. 그저 『책부원귀』에 643년 11월 신라 사신이 입당한 사실만 전해질 따름이다.⁵⁴⁾ 그러나 그 이전, 즉 643년 9월에 입당한 신라 사절(이하 '9월 견당사')이 귀국하기도 전에 해당 사절이 급거 파견된 사실은 분명 주목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이 같은 정황상 '당항성 공격 계획'을 당에 전달한 주체는 '11월 견당사'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것이다. 즉, '9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 이후 언젠가 백제-고구려의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신라에 입수되었고 당시 위기의식이 충만해 있던 신라 조정으로선, 이미 講兵을 위해 한 차례 파견했던 견당사가 귀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견당사를 파견해 해당 정보를 당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⁵⁵⁾ 특히 당항성이 공격받을 경우 신라의 대당 교섭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뒷날 당이 '고구려와의 協契' 의혹을 부정한 백제의 해명에도⁵⁶⁾ 불구하고 백제에

54)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 第3 (唐) 太宗 貞觀 17年.

55) 그런 점에서 전술한 '9월 공세설'과 달리 '당항성 공격 계획설'은 그 자체 신라가 조작한 허위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일 그것이 신라의 조작이었다면, 굳이 꼭 '9월 견당사'가 귀환하지도 않은 시점에 재차 견당사를 파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한 조작은 '9월 견당사'의 귀국 보고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56) 관련 사실이 645년 초 당 태종이 반포한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일명 「唐太宗與百濟義慈王書」)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주보돈,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경북사학』 15, 1992, 164~167쪽 참조.

대한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⁵⁷⁾ 역시 이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닐까. 그리고 『구당서』 찬자는, 삼국이 연루된 동일 사건이 각 열전을 통해 상호 유기성을 지니도록 서술하고, 백제 병탄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자신의 의도에 맞춰 ‘11월 견당사’가 전한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를—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원 자료를 ‘가공’하여—『구당서』 백제전에 자료⑥처럼 기술했던 것이 아닐까. 자료⑥이 연대 표기상 모호한 기술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⁵⁸⁾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전자료의 부족으로 추론을 거듭한 감이 있지만,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주변 정황을 검토해 볼 때 이와 같이 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를 마치 642년 8월에 인지했던 것처럼 기술한 자료①은 기왕의 지적대로 『삼국사기』 찬자가 『구당서』 백제전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료①에서 본래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인 ‘643년 8월’을 ‘642년 8월’로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설사 자료①의 기년(642년 8월)을 ‘643년 8월’의 오류로 인정하더라도, 『삼국사기』 신라본기상에서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유전승이 보이지 않는 점에 있다. 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된 신라 고유의 구체적인 전승이 부재한 것일까? 당시 신라 사회에서 당항성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일단 『삼국사기』 백제본기 소재 602년 이후의 기사 중 백제본기에만 보이는 고유 기사가 많은 현상에 착안한 견해에

57) 정동준, 「의자왕대 백제에 대한 당의 인식 변화-외교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립』 55, 2016, 44~52쪽.

58) 종전의 지적처럼 唐使 상리현장의 파견은 643년의 일임에도 『구당서』 백제전의 찬자는 이를 정관 16년(642) 조에 일괄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당서』 찬자가 상리현장의 파견 시점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자료⑤와 ⑦에서 드러나는 바이다.

주목해볼 수 있겠다. 이에 따르면 이 시기 백제 측 사정에 밝았던 신라가 백제의 사정까지 충실하게 담은 전승 자료를 남겼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자료들의 경우 『삼국사기』 편찬 시 신라본기가 아닌 백제본기에 기록되었다고 한다.⁵⁹⁾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항성 전투'와 '당항성 공격 계획'을 구별해볼 경우 또 다른 가능성 역시 상정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연 당시의 역사적 실상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절을 달리해 살펴보자.

5. 당항성 전투의 재구성과 백제의 대외정책

전술한대로 '9월 견당사'와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은 각각 643년 3월~7월 및 643년 5월~9월 무렵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11월 견당사'가 출발한 643년 5월~9월 직전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신라에 입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삼국이 첩보전을 치열하게 벌이던 시기였던 바,⁶⁰⁾ 그리하여 현전 『구당서』 백제전에는 '당항성 전투'가 아닌 '당항성 공격 계획'만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적어도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에는 백제의 당항성 공격이 개시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주목되는 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하는 자료②이다. 편의상 해당 자료를 다시 한 번 인용해보자.

59) 임기환, 앞의 논문, 2008, 306~309쪽.

60) 『三國史記』 卷41~42 列傳 第1~2 金庾信 및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金庾信條에는 고구려의 첩자였던 승려 德昌과 白石, 백제장군 殷相이 신라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첩자 등이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관련 논문으로는 김영수, 「612년 여·수 전쟁과 고구려의 첩보전」, 『민족문화』 30, 2007 등이 있다.

봄 정월 사신을 보내 당에 들어가 조공하였다. 겨울 11월 왕이 고구려와 和親하여 신라의 党項城을 취하여 入朝 길을 차단하려 모의하고 마침내 병력을 일으켜 공격하였다. 신라왕 德曼이 사신을 보내 당에 구원을 요청하니 왕이 이를 듣고 병력을 철수하였다.

전술한대로 643년 11월 한 달 동안 위 기록에서 전하는 사건들이 모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하기 직전에는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를 신라가 입수했을 것이므로, 『구당서』 백제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위 기록의 밑줄 친 구절은 643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은 아닐 것이다. 위 기록의 “마침내(=遂)”라는 표현도 이를 잘 보여준다. 즉,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계획은 상당 기간 동안 준비되었던 것이고, 고구려와의 화친 역시 그러한 과정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642년 7~8월 신라 서변의 重鎮인 대야성과 그 주변 40여 성을 점령해 신라의 수도 경주를 위협하기에 이른 백제로선 이제 다음 단계로 신라의 대외창구인 당항성마저 공략함으로써 신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신라의 명운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가 당에 “사직의 보전”을 운운하며 강한 국가적 위기의식을 토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백제로선 이번 당항성 공격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기실 신라가 당항성을 방비하고자 지금의 평택 일대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배치시켜두었던 방어망을⁶¹⁾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준비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아마 백제로선 당시 한강~임진강 하구 일대 및 서해상에서 신라 견당사의 사행을 감시하던 고구려 水軍의⁶²⁾ 호응을

61) 이와 관련해서, 문안식, 앞의 논문, 2004, 15~16쪽 및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 96, 2015, 153~157쪽에 잘 설명되어 있다.

62) 645년 당 태종은 백제에 보낸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에서 신라로 파견하는 당의 사신들의 호송을 부탁하면서 해당 사신들이 가는 도중 莫離支(=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 ‘鈔截’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바, 이 밖에 648년 당을 방문한 김춘추가 귀국 당시 해상에서 고구려의 ‘邏兵’을 만나 위급한 상황이되자 그의 從者 溫君解가 김춘추를 대신해 죽었던 사례(『三國史記 卷5 新

기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위 기록에서 고구려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에 주목한다면, 당시 고구려는 직접 군대를 출병시켜 호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당시 양국 간에 공조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군사동맹의 형태가 아니라 신라의 (군사)동향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전략적 협력’ 수준이⁶³⁾ 아니었을까 한다.⁶⁴⁾

문제는 전술했다시피 위 기록이 백제본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신라인이 남긴 자료에 근거했을 것인 만큼 당시 백제 측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 및 병력 규모, 공격 양상과 관련해선 무척 소략한 사실만을 전하고 있는 데 있다. 위 기록만으로는 실제 당항성에서 전투가 일어났는지조차 불분명하게 보인다. 다만 “병력을 철수하였다”라는 마지막 구절로 보아 643년 11월 무렵 의자왕이 당항성 공격을 목표로 병력을 일으킨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항성 주변의 방어망이 워낙 견고했을 뿐더러,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연합군 결성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항성 공격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미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가 신라로 유출된 상황에선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혹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고유 전승이 보이지 않는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즉, 당시 백제의 당항성 공격은 병력을 징발해 출병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뿐, 실제 전투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제3의 자료가 없는 현재로서는 자세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만약 실제 당항성에

羅本紀 第5 眞德王 2年)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이 기록에서 고구려 수군이 온군해를 김춘추라 여겨 죽었다고(“春秋還至海上 遇高句麗邏兵 春秋從者溫君解 高冠大衣 坐於船上 邏兵見以爲春秋 捉殺之”) 전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는 水軍의 감시망을 통해 김춘추의 訪申 정보까지 입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3)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40쪽.

64) 신라가 당에 ‘麗濟連兵說’을 호소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 전투가 일어났다면 중국 측 기록에서도 642년 백제의 ‘신라 서 변 점령 사건’처럼 이를 특기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당서』 백제전에는 ‘당항성 공격 계획’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위 기록상의 “마침내 병력을 일으켜 공격하였다”라는 구절 역시 실제 ‘전투의 발생’이 아닌, ‘병력 동원’ 차원의 맥락에서 읽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의자왕의 철병 이유와 관련해 위 기록에선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을 들고 있는바, 전술한 대로 신라가 당항성 공격 계획과 관련해 당에 구원을 요청했다면 그것은 643년 11월에 입당한 견당사를 통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643년 11월은 해당 신라 사절이 입당한 시점이었지, 위 기록처럼 파견된 시점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위 기록상의 643년 11월이라는 기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와 관련해선 다음 세 가지 상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백제 멸망 후 신라인들이 백제 멸망기의 史籍을 정리하면서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를 당에 전하고자 파견된 사절단이 643년 11월에 입당한 사실에 착안해 관련 사실을 위와 같이 일괄 조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을 신라인의 관점에서 읽어낼 때 그럴 듯한 추정이라 여겨지지만, 한편으로 신라인들이 견당사 관련 기록을 작성할 때 본국으로부터의 ‘파견’ 시점이 아닌 ‘입당’ 시점을 기록했을지 의문이 남는다.

둘째, 당시 신라 견당사의 사행에 2~6개월이 소요된(편도 기준) 사정을 감안하면, 643년 9월 4일 당 태종을 접견했던 신라 사절단(‘9월 견당사’)이 643년 11월 중에 귀국했을 가능성 역시 상정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들의 경우 당항성 공격 계획이 아닌, 고구려와 백제의 지속적인 신라 공격을 호소하기 위해 당에 파견되었지만, 여하간 이들 사절 역시 당나라에 백제·고구려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였고, 곧이어 唐使 상리현장이 고구려와 백제에 파견될 것이라는 정보가 백제에 알려졌다면, 의자왕의 철병 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겠다. 더구나 ‘9월 견당사’의 호소에 당 태종이 제시한 계획 중 제3책은 당의 水軍이 바다를 건너 백제를 直攻하는 안이었다.⁶⁵⁾

그렇지만 ‘9월 견당사’의 외교적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고려하면 이 역시 의문은 남는다. 더욱이 위 기록대로 643년 11월 백제가 당항성을 공격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때 ‘9월 견당사’가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가정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9월 견당사’가 백제의 당항성 공격 이전에 귀국했어야 할 것인바, ‘9월 견당사’의 대당 외교활동 결과가 백제에까지 알려지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고려하면,⁶⁶⁾ 이러한 가능성은 더 더욱 낮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셋째, 당항성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신라로 유출되어 ‘11월 견당사’가 파견된 사실을 전해들은 의자왕이⁶⁷⁾ 당항성 공격을 위해 동원한 병력을 643년 11월에 철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대로 ‘11월 견당사’가 신라를 출발한 시점은 643년 5월~9월 무렵으로 추산되는바, 그렇다면 그 이후 11월에 이르기까지 해당 견당사가 출발한 사실이 백제에 전해졌을 시간은 충분한 셈이다. 더구나 당항성 일대에 포진해있던 신라의 방어망을 감안하면, 당시 백제로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사해야 했을 터인데, 이미 공격 계획 관련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선 더 이상 이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그 결과 당항성 공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되었던 것이 아닐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당항성 전투’와 관련된 고유 전승이 보이지 않는 문제 역시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65) 『冊府元龜』 卷9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百濟國負海之險 不修兵械 男女分雜 相好宴聚 我以數 十百船 載以甲卒 銜枚汎海 直襲其地”

66) 당시 신라 견당사들이 경주에서 당항성(뒤의 唐恩浦)까지 갈 때에는 대략 15일이 소요되었다고 한다(권덕영, 앞의 책, 1997, 214~215쪽).

67) 만일 의자왕이 해당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 그것은 고구려로부터 전달된 정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자료②에서 군이 백제와 고구려의 ‘화친’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의자왕의 철병은 자체의 군사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을 뿐, 신라의 대당 구원요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 된다. 그리고 이를 두고 신라인들이 선덕왕 당대에, 혹은 백제 멸망 이후 관련 사실을 재정리하면서 선덕왕의 치적을 강조하거나 나당연합군의 백제 병탄을 상기시키고자 마치 신라의 대당 구원 요청에 의해 의자왕이 철병한 것처럼 기록했던 것은 아닐까. 아울러 이러한 전승이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료②와 같은 기사가 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세 가지 가능성 중 현재로선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역사상을 그려볼 수 있다. 643년 백제 의자왕은 당항성 공격을 상당 기간 준비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바,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그 과정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항성 일대에 신라가 구축한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선 고구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양국의 공조는 군사연합(또는 동맹)의 수준은 아니었고, 한강·임진강 하구~서해상에서 신라의 군사·외교 동향을 감시하던 고구려가 관련 정보를 백제에 전달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⁸⁾ 그렇지만 이러한 준

68) 한편, 여기서 당시 고구려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시기 고구려는 백제·신라 간의 적대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백제·신라 양국 모두와 선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다. 특히 642년 연말 김춘추의 講兵 요청을 거부한 연개소문 정권으로선, 이제 한반도 내에서 남은 선택지는 백제 밖에 없었던바, 이러한 정세조건 뿐만 아니라 610년대 隋의 고구려 침공 당시 신라에 의해 고구려의 남쪽 영역을 공략당한 ‘역사적 경험’ 역시 당시 고구려 집권층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마침내 고구려가 백제의 화친 요청을 수용한 요인이었으리라 생각된다(이상의 내용은,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38~40쪽 참조). 아마 이에는 당시 唐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백제로 하여금 對新羅 攻勢에 집중케 함으로써 백제·신라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부전선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고구려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백제의 당항성 공격 구상에 대해 고구려가 양국 간 정보교환 수준을 넘어 연합군을 결성한 흔적은 없는 점에 주목할 때 이 시기 고구려는 백제·신라 간 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삼가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함께 644년 상리현장의 고구려 방문 당시 이미 연개소문이 신라의 두 성을 함락시

비 기간이 도리어 역효과를 낳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바, 결국 백제의 당항성 공격 계획 정보가 신라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삼국 간에 첩자를 활용한 첩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시대였다. 이에 신라 조정은 이미 구원 요청을 위해 파견한 견당사가 귀국하지 않았음에도 643년 5월~9월 사이 재차 견당사를 파견했던바, 해당 견당사는 같은 해 11월 입당해 당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해당 견당사가 급파되었다는—사실이 백제에 알려지면서서 643년 11월 당항성 공격을 위해 병력을 징발한 의자왕이 더 이상 ‘전격적인 공격작전’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공격의 실행을 포기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아울러 이상이 당항성 전투의 실상이었다면, 여기서 당시 백제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검토한대로 백제의 당항성 공격 시도 자체는 사실이었으며, 동시에 백제의 당항성 공격 중지는 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백제 자체의 군사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일견 당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백제의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당시 백제가 당과의 관계 악화를 바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44년 당이 상리현장을 보내 백제에 경고하자 의자왕은 이듬해 정월 태자 扶餘康信을 당에 賀正使로 파견해⁶⁹⁾ 표문을 전달했던바,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에 나타나듯 백제는 당의 의혹—백제가 고구려와 協契했다는—을 극구 부인하였다. 심지어

켰던 사실(『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 第9 寶臧王 上 3年)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단독공세는 지속하되, 백제·신라 간 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삼가는 ‘二重的 對南方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마 이는 당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남부전선의 안정’과 ‘대신라 공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했던 당시 고구려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69)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 朝貢 第3 (唐) 太宗 貞觀 19年 正月. “庚午朔 百濟太子扶餘康信延陀新羅 … 遣使來賀 各國方物” 이때 백제태자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논급을 피하겠다.

당의 고구려 침공이 이루어지면 자국의 병력을 발동해 돕겠다는 의지까지 천명하였다. 하지만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자 정작 백제의 행보는 이러한 약속과는 정반대였다. 주지하다시피 이때 백제는 당에 金髮鎧와 山五文鎧를 보내⁷⁰⁾ 전날의 言約에 대한 성의만 표시했을 뿐, 唐軍에 호응하는 병력을 동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신라의 7성을 습격해 함락시켰던 것이다.⁷¹⁾ 즉, 이때 백제는 對新羅 攻勢를 대당관계와 연관시켜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백제에 있어 ‘대당 친선’과 ‘대신라공제’는 擇一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대외적 목표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대당 친선’이 유지되는 한 ‘군사동맹’이 아닌,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수준에서 유지하면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이를 두고 중국 측 사서에서는 “百濟懷二”라는 프레임을 덧씌웠지만,⁷²⁾ 실상 이 시기 백제의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자국 안위와 목적의 극대화 그 자체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父王 무왕이 고구려와 隋 사이에서 도모했던 兩端策을⁷³⁾ 의자왕이 계승한 결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가 이러한 대외정책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다름 아닌 643년 9월 신라 사신의 구원 요청에 대한 당 태종의 답변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 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백제가 바다의 험함을 믿고 자만에 빠져있다고 논평했던바,⁷⁴⁾ 이 말처럼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다른 지리적 이점을 믿고 당이 바다를 건너 자국을 직접 침입할 수 있다는 상정은 거의 하지 않고 있

70)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71)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5年. 그런 점에서 「貞觀年中撫慰百濟王詔」를 근거로 백제-고구려의 화친을 부정하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당 태종의 면전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백제의 행보로 보아 고구려와의 ‘협계’를 부인했던 백제의 해명 역시 진실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72) 『舊唐書』 卷199上 列傳 第149上 東夷 百濟.

73) 武王代 양단책의 실상과 관련해선, 윤성환, 앞의 논문, 2011, 20~32쪽을 참조할 것.

74) 『冊府元龜』 卷991 外臣部 條禦 第4 唐太宗 貞觀 17年.

었다고 보인다. 뒷날 백제 지배층 가운데 成忠과 같은 일부 인사가 당의 침입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⁷⁵⁾ 이때는 백제의 대당외교가 완전히 단절된 뒤였다.⁷⁶⁾ 훗날 김유신이 백제멸망의 원인을 '백제의 傲慢'에서 찾았던 것은⁷⁷⁾ 이와 관련해 흥미해볼 만하다.

6. 맺음말

그동안 '당항성 전투'를 둘러싼 논의는 극심한 혼란을 누적해왔던 바, 관련 자료를 기초적 측면에서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역사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643년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대당교섭을 차단하고자 당항성 공격을 추진했던바, 무엇보다 당항성 주변 교통로 상에 밀집되어 있던 신라의 방어망을 돌파하려면 상당기간의 준비와 함께 당시 한강·임진강 하구~서해상에서 신라의 군사·외교 동향을 감시하던 고구려와의 공조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의자왕은 고구려와 '화친'해 고구려의 전략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자체의 준비를 거쳐 당항성을 '급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삼국 간 첩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상황에서 상당 기간의 준비는 관련 정보가 신라로 유출되는 역효과를 낳았고, 이에 신라 조정은 이미 643년 9월 구원 요청을 위해 입당한 견당사가 귀국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해당 견당사는 같은 해 11월 입당해 당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유출 사실이 백제에 알려지면서

75)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16年(656).

76) 주지하다시피 백제 최후의 대당외교는 652년이였다(『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第6 義慈王 12年).

77) 이와 관련해서,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07, 219~225쪽을 참조할 것.

643년 11월 당항성 공격을 위해 병력을 동원한 의자왕은 더 이상 ‘전격 작전’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공격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자왕의 당항성 공격 중단은 자체의 군사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을 뿐, 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이 시기 백제 대외정책의 일단이 드러난다.

당시 백제는 ‘대당 친선’과 ‘대신라공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고구려와의 공조 역시 ‘군사동맹’이 아닌 ‘전략적 협력’ 수준에서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뒷날 중국 측 사서에서는 “百濟懷二”라는 프레임을 덧씌웠지만 실상 이는 자국의 안위와 목적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당시 백제의 대외정책이었다. 이는 의자왕이 父王 무왕의 ‘양단책’을 계승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백제가 이러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던 요인은, 643년 당 태종의 논평처럼 고구려와 다른 지리적 이점을 믿고 당이 바다를 건너 자국을 직접 침입할 수 있다는 상정을 하지 않았던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2019. 1. 11,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당항성 전투, 643년 11월, 의자왕, 고구려, 백제, 양단책, 견당사

<참 고 문 헌>

『國史記』 『國朝事』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影印古籍資料(<https://sou-yun.com/eBookIndex.aspx>)

中華民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漢籍電子文獻資料庫(<http://hanchi.ihp.sinica.edu.tw>)

漢川草廬(<http://www.sidneyluo.net>)

維基文庫(<https://zh.wikisource.org>)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강중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 계통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강중훈, 「『晉書』慕容靚載記와 資治通鑑 晉穆帝紀 所載 ‘百濟’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 『대구사학』 121, 2015

권덕영,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김수태,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 24, 2004

김영수, 「612년 여·수 전쟁과 고구려의 첩보전」, 『민족문화』 30, 2007

김영하, 「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와 전쟁」, 『신라사학보』 38, 2016

김지영, 「7세기 고구려와 백제 관계의 변화」, 『인문학연구』 32, 2016

김진한, 「보장왕대 고구려의 대당관계 변화와 그 배경」, 『고구려발해연구』 39, 2011

노중국, 「7世紀 新羅와 百濟와의 關係」, 『신라학국제학술대회 논문집-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 2010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2004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역사문화연구』 27, 2007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 13, 2015

박주선, 「百濟 義慈王代의 신라 독립책과 對倭관계」, 『한국사론』 61, 2015

방용철,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2016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3 중세편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2007
- 윤성환,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향토서울』 79, 2011
- 윤성환, 「624~642년 고구려의 대당(對唐)외교와 정국동향」, 『동북아역사논총』 59, 2018
- 이호영, 「麗·濟連和說의 檢討」, 『경희사학』 9·10, 1982
- 임기환,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재구성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 임기환, 「연개소문과 김춘추, 국운을 바꾼 선택」, 『쟁점 한국사』 전근대편, 창비, 2017
- 전덕재, 「三國史記 百濟本紀 記錄의 基本原典과 改撰」, 『역사와 담론』 80, 2016
-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46, 2002
- 정동준, 「의자왕대 백제에 대한 당의 인식 변화-외교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림』 55, 2016
- 정효운, 『古代韓日關係史の研究』, 立命館大学校 박사학위논문, 1993
- 주보돈,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 『경북사학』 15, 1992
- 주보돈,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 內政」, 『한국학논집』 20, 1993
- 주보돈, 「7世紀 羅唐關係의 始末」, 『영남학』 20, 2011
- 주보돈, 「백제사 관련 신출토 자료의 음미」,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사계절, 2014
- 최현화, 「7세기 중엽 羅唐關係에 관한 考察」, 『사학연구』 73, 2004
- 최호원, 「高句麗 寶藏王代 對新羅關係와 認識」, 『고구려발해연구』 50, 2014
- 최희준, 「신라 ‘党項城’의 연혁과 善德王代 羅唐關係」, 『선사와 고대』 47, 2016
- 황보경, 「7세기 초 삼국의 정세와 당항성 전투 의의」, 『군사』 96, 2015

<Abstract>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battle of ‘Danghang castle’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Yoon, Seong-Hwan

In the meantime, it has been extreme confusion in the documentary record and researchers' discussions about the battle of ‘Danghang castle(党項城)’ in the Three Kingdoms period(三國時代).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lated historical material from the basic point of view, the following history can be depicted.

In 643, Baekje(百濟)'s King Uija(義慈王) pushed the attack on the Danghang castle to block Silla(新羅)'s lines of communication with Dang-China(唐). In order to overcome Silla's defensive network, which was concentrated on the traffic road around the Danghang castle, Baekje's King Uija cooperated with the Goguryeo(高句麗), who was monitoring the military and diplomatic trends of Silla at the Han River(漢江) and the Imjin River(臨津江) estuary toward the West Sea(西海), and prepar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rough this, the king Uija tried to raid Danghang castle.

However, at the time when the three countries' secret war plans fiercely developed, such preparations had the adverse effect of releasing relevant information to Silla. Although Silla had already dispatched an envoy to Dang-China to ask for salvation, Silla sent another envoy to Dang-China to announce it. The delegation seemed to have delivered relevant information to Dang-China in November 643. And, as Baekje became aware of the information leak, the king Uija, who mobilized troops to attack Danghang castle in November 643, seemed to have stopped the attack, judging that the raid(surprise attack) was no longer possible. In other words, the

king's attack discontinuance on Danghang castle was based on his own military strategic judgment, not on Baekje's relationship with Dang-China. Here, a part of Baekje foreign policy is revealed in this period.

At that time, Baekje had been pushed foreign policies that pursued both 'goodwill against China' and 'attack on Silla'. In this context, cooperation with Koguryo seems to have been maintained at the level of 'strategic cooperation' rather than 'military alliance'. In the later days, Dang-China criticized Baekje for having had duplicity, but it was Baekje's foreign policy to maximize the security and purpose of self-country at that time. This was the result of inheriting his father's 'two-way policy(兩端策)'. The reason why Baekje was able to use this foreign policy seems to be that it did not assume that the Dang-China could directly penetrate across the sea, believing different geographical advantages from Goguryeo as King Dang-China Taejong(唐太宗)'s commentary in 643.

Key words : Danghang castle(党項城) battle, November 643, King Uija(義慈王), Goguryeo(高句麗), Baekje(百濟), two-way policy(兩端策), envoy to Tang(遣唐使)